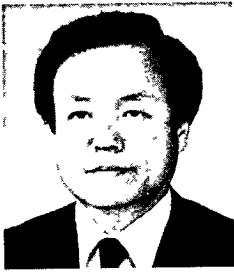


프로이드의 성격구조이론

辛 明 烈



1. Freud 이론의 변천

Freud 사상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 1기 . 히스테리 연구 시작, 자유 연상법 확립, 「꿈의 분석」 저술 → 임상 경험과 자기 분석을 토대로 성욕론 전개의 기초 확립
- 2기 : 미국에서 '정신 분석학' 강의, 성(sex)적 이론으로

인한 의견 대립으로 아들러(Adler, A.), 융(Jung, C.G.)과 결별

- 3기 . '자아의 기능' 이론이 확립
→ Freud이론이 사변적이 되고 이론은 정밀화 되어 본능론이나 정신구조론이 대성되었다

2. 성격의 구조

Freud는 초기에 심적 구조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3가지로 보았으나 후에 이에 원욕(Id), 자아(Ego), 초자아(Super ego)라는 역동적 개념을 도입한다

가 원욕(Id)

원욕의 본성은 쾌락원칙이다. 원욕에 의해 야기된 행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작용하기 때문에 Freud는 쾌락원칙이라 불렀다. 이러한 원욕은 항상 무의식 과정에 있으며 심적 에너지의 원천이다 내적 또는 외적 자극으로 자아나 초자아에 이 에너지가 공급되면 될 수 있는대로 빨리 기초적 수준으로 낮추려고 행동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무분별한 인간의 쾌락은 사회, 환경적 규제를 받기 때문에 '꿈' (1차 과정)과 같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표상을 그리려 한다.

나. 자아(Ego)

그러나 1차 과정의 표상은 현실사회의 요청에 조화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체

계, 즉 자아가 원욕의 현실과 접하고 있는 부분으로부터 분화, 발달해 가는 것이다

자아는 전의식 - 의식 과정에 있어서 1차 과정을 수정하고 억제하는 2차 과정이다 2차 과정의 사고는 1차 과정의 단순한 충족 체험의 지각 재현을 뛰어 넘어선 여러가지 사고 표상을 관련시키고 통합하여 추리, 판단 등의 고차원적 영역인 것이다 자아는 욕망의 일시적 만족만이 아닌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아에 따르는 법칙을 현실법칙이라 부른다

Freud의 후기 이론에서는 이러한 자아를 원욕과 독립된 그리고 현실, 원욕, 초자아로부터의 요구를 균형있게 정리하는 행정관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자아는 불쾌감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어 기제(defence mechanism)를 이용하는 주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방어기제의 많은 부분이 무의식적인 것으로 억압(repression), 퇴행(regression), 승화(sublimation), 동일시(identification),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 등이 있다.

이 방어 기제는 그 개념과 기능이 확장되어 적응기제(adjustment mechanism)로도 불리게 된다. 이 방어기제의 반복 사용은 인간 성격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다 초자아(Super - ego)

초자아는 무의식-저의식 과정에서 자아를 매개로 원욕의 욕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부모의 훈육이나 사회 윤리, 가치관 등이 자아속에 들어가 마음 속의 양심, 도덕심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끄러움, 죄악감, 두려움 등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양심으로서의 부분 외에 부모나 사회의 이상이 딱혀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자아 - 이상(ego ideal)이라고 한다.

이들 3가지 영역은 각기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호 작용을 하고 있으며 자아에 의해 통합되어 하나의 성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 3영역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룬다면 내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이 되나 어느 한 영역에 에너지가 집중되면 다른 영역이 저하되어 편중된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성격의 발달

Freud가 사용한 성 본능론은 성욕구만을 말한 게 아니다. 성본능론은 넓게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를 말하며,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에너지론적 입장에서 제시한 용어였다. 이 욕구는 그 원천이 신체 부위에서 추구하게 되는 리비도(Libido)

라고 이름붙여진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에 의해 설명된다 각 신체 부위로부터 자아로 향해 에너지가 공급되고, 발달 단계에 따라서 고유한 충족 목표를 갖기 때문에 Freud는 다음과 같은 성 본능론으로 발달 단계를 구분하였다.

가 구강기(oral phase - 접유기)

1세 반무렵까지를 말하는데 리비도는 구강(입술)이나 혀 등의 입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 있으며 욕구의 충족은 유방을 빠는 것이다 이 시기에 획득한 성격을 Freud는 구강기 성격이라고 했다 이것은 접유를 매개로 어머니와의 일체감에 의해 생기는 애정의 교환과 관련이 있다. 애정 욕구 불만으로 부터 생기는 의존적 성격이나 과잉적 애정 관계로부터 생기는 낙천적 성격 등이 거론된다

나. 항문기(anal phase)

2세 전후의 아기는 항문 괄약근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리비도는 항문 주위로 옮겨 가서 대소변을 배설하거나 참게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대소변 훈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항문기 성격을 만든다 훈육이 엄하면 완전벽, 완고, 고집된 성격이 형성되어 반동형성되면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청결주의적 성격으로 된다고 하였다.

다 남근기(phallic phase)

3세 무렵부터 유아는 성 또는 성별에 의식하게 되는데 남아는 어머니에 대하여 근친상간의 원망(또는 욕망)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질투와 원한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이것을 Freud는 외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라고 하였다 라이벌 관계의 아버지로 부터 거세불안과 어머니에 대한 폭력으로 아이는 거세를 현실적인 것으로 확신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아버지에게 동일시하게 되고 남성역할을 획득해 가는 것이다 외디푸스 콤플렉스는 처벌되는 것인데, 금지자로서의 부모의 태도가 유아 속에 숨겨져 초자아로 된다.

여아에 있어서는 페니스가 없다고 해서 거세 콤플렉스를 품고 어머니를 동일시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데 일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라고 한다.

라. 잠복기(latency phase)

6세부터 12, 13세까지의 리비도는 어느 한 곳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성적인 힘도 잠재된다. 외디푸스 콤플렉스는 무의식 속에 계속 존재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 원욕은

■ 프로이드의 성격구조이론

약해지고 자아와 초자아는 강력하게 된다 초자아의 기능 발달로 친구, 특히 동성 친구로 리비도는 지향하게 되고 동일시 대상도 주로 친구가 된다 리비도가 자아에서 외계로 향하여 승화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마. 생식기(genital period)

사춘기로부터 성적으로 성숙되는 성인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때는 심한 생리적 변화와 격동적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징이다. 이것은 또 사춘기 전기와 사춘기로 나뉘어 지는데 사춘기 전기는 12, 13세부터 시작되며 성적 성숙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동물적인 쾌락추구에 몰두하거나 자아를 지나치게 표면에 내세우는 경향을 보인다 즉, 원욕이 우세하게 되면 지나친 쾌락 추구로 사춘기 특유의 공격성, 야수성, 범죄 행동이 왕성해지며 자아가 너무 표면화되면 불안감, 금욕주의, 지성화의 경향이 강해져서 원욕을 억제하고 자아를 방어하려고 애쓰게 된다.

사춘기는 성적 성숙이 다 이루어지는 때이므로 전기의 불안감이 사라진다. 이 시기에 이르면 외디푸스 콤플렉스적인 공상에서 벗어나 관심이 가족으로부터 가족 밖의 연장자나 이성으로 쏠리게 된다. 이성에 대한 성적 욕구는 다른 활동을 통해서 승화되기도 하는데 독서, 운동, 자원봉사 등은 흔히 도덕적 사회 규범이 강한 사회의 청소년들이 성욕을 승화시키는 대체 활동이 된다.

이상적인 생식기적 성격 발달을 위해서는 근면을 배워야 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켜야 하며,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리비도가 충족대상을 바꿔가면서 발달할 때에 충족개념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에는 리비도는 그 발달 단계에 고착하여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그 단계의 리비도적 충족을 계속 구하게 되고 그 특징을 발달시켜 인격화한다. 또는 그러한 경향이 잠재화되어 성장하더라도 욕구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그 단계에 퇴행하여 특징적인 행동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

(광주 동구 계림2동 181-6 원제당한약방 ☎ 062-223-1550)